

열두 제자의 파송

¹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²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³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⁴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⁵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⁶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눅 9:1-6)

천국에서 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한 집에 함께 지냅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때도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같은 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다른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집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AC.9927:5)

"To enter into a house," "to abide there," and "to go out thence" denote to enjoy heavenly consociation with those who receive the Lord in faith and love; for in heaven those who are together in one society are also in one "house," and they come in and go out there, because they are in a like good; but those who are in an unlike good cannot do so; and if they do enter in, they do not enter by the doors, but by some other way. He who does not know that such things are signified cannot know what is involved in the words, that "into whatsoever house they should enter, they should there abide, and thence go out." (AC.9927:5)

눅9:1-6

‘열두 제자의 파송’

새로운 가르침에서는 ‘교회
는 지상의 천국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진리와 선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과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양심이나 상식 같은 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광기와 증오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창세 이래 지상에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해 온전히 자기 역할을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

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라 인애(仁愛, charity,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인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는 사랑이 들어 있으며, 그 사랑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기만 하고, 인애, 체어리티의 삶을 살지는 않는 사람들의 진리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언행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님께서 열두(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열둘(12)이라는 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속뜻으로는 주님의 제자 열둘을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와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와 선, 이 둘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해는 깊은데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도 있고, 진리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지만, 아는 만큼은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일의 분야와 종류가 모두 똑같지가 않습니다. 애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열두 제자는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애정의 색깔이 다른 모든 신앙인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²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새 천국이고요, 땅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마다 어김없이 낡은 교회를 폐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여시곤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표상되는 태고교회가 타락했을 때, 노아교회를 세우셨고요, 노아교회로 표상되는 고대교회가 타락했을 때, 히브리교회와 유대교회를 차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했을 때, 이제 기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마지막 때마다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첫 번째 사명은 언제나 새 교회의 도래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의 병이

눅9:1-6

‘열두 제자의 파송’

아니고 영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들, 그리고 진리에다 인간의 생각을 섞어 왜곡하는 영적 나병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시는데 그것이 3절과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³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라 했는데 여기서 여행이란 제자들의 영적 삶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행을 위하여’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규범을 나타냅니다. 그 규범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팡이와 양식과 돈, 그리고 두 벌 옷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진리의 능력을 뜻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는 진리의 능력을 뜻합니다. 진리를 전

할 때는 진리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보다 자신의 언변을 믿고, 지성을 더 믿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팡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양식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양식은 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갖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선, 인간의 선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선한 일을 할 때, 진리를 따라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하다 여길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며, 그러므로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식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돈’은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생각하는 순간,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을 자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 설교 원본에 '배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은 부득이 스킵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옷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두 벌 옷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인간의 진리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이나 총명함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입니다. 주님의 순수한 진리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섞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짓, 곧 두 벌 옷을 갖는 짓은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⁴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앞에서 '천국의 비밀' 9927번 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요. 거기에 보면 천국의 천사들은 비슷

한 사랑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사회, 또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애정이 서로 비슷할 때, 진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내면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애정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면 마치 인연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애정이 비슷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하십니다. 다음은 5절 말씀입니다.

⁵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 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비슷한 본문이 여러 본문(마10:14-15; 막6:11; 눅10:10-12)에도 있는데요, 그중 마태복음을 보면,

눅9:1-6

‘열두 제자의 파송’

¹⁴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¹⁵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10:14-15)

이 본문들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속뜻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교회의 모든 것, 즉 신앙과 체어리티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여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은 그런 신앙의 진리들과 체어리티의 선을 모두 거부하는 것을,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는 저주를 각각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티끌’이 나오는데요, 이 티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지’(dust)이며, 이 출애굽기 본문을

포함, 다른 많은 본문에서 ‘먼지’는 저주받은 것(what is damned)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 스페덴보리의 말입니다.

‘먼지’가 저주받은 것을 가리키는 이유는, 발바닥들 아래 경사진 곳들, 그곳은 악령들이 있는 장소들이 땅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옥들 아래 있는, 경작되지 않은, 마른 땅 같아 보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하는 곳으로, 이곳 먼지는 이곳이 저주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종종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악령들이 거기서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자 할 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AC.74 18:1)

※ 여기 ‘발바닥들 아래’라는 표현은 천국 전체, 아니 영계 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영계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람(The Grand Man) 모양인데요, 이는 너무나 커서 그 어느 천사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 가

지 단서로 미루어보아 분명하다고 합니다. 즉 지옥은 저 아래 거대한 사람의 발바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위 마태복음 본문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정보다 견디기 쉬우리라’와 연결되는, 저주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누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정말 숨이 막히는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인애, 체어리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모두가 작은 천국이며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 제자 삼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진리와 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만 말하고 행할 뿐,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이나 언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믿음과 애정의 특성에 따라 각자 할 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가정에서는 가정의 직분을, 사회에서는 사회의

눅9:1-6

‘열두 제자의 파송’

직분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자체가 사명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결 통해 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때로는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겸손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아멘

원본

2019-03-2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4일(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